

주체105(2016)년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으로 확증한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

김 경 철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인 주체105(2016)년은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로 뚜렷이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바로 이것이 2016년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으로 확증한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주체조선의 상징이고 필승의 무기인 일심단결은 천만군민이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하고 무한대의 힘을 가진 불패의 단결이며 자력자강의 길은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을 천백배로 튼튼히 다지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올바른 진로이다.

천만군민이 당중앙위원회 프락에 운명의 피줄을 이어놓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불패의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이 있음으로 하여 주체105(2016)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력사에 류례없는 만만시련을 이겨내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주체105(2016)년의 력사적투쟁을 통하여 확증한 진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 사회의 참모습인 일심단결이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라는것이다.

단결은 사회주의의 밑뿌리이며 사상의 위력도 결국은 천만군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발현된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단결된 사회주의만이 강력한 사회정치적지반우에서 승승장구하게 된다.

사회주의강국의 첫째가는 징표는 정치사상강국이며 정치사상적힘은 다름아닌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주체105(2016)년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압살책동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문화 등 각 방면에서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특히 일편단심 당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의 가증스러운 책동은 더욱 비렬하고 강도높이 감행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머리우에 철퇴를 안기고 당중앙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었다.

주체105(2016)년 5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속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가 천명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전당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었다. 이것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우리를 진감시켰다.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백배로 다져나갈 전당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근로단체조직들은 당과 인민대중과의 유기적연계를 보장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 제7차대회이후 련이어 소집된 청년동맹, 직맹, 녀맹, 농근맹대회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적역할을 높이는데서 획기적리정표로 되었다.

주체105(2016)년에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갈수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닌 전체 군대와 인민은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통하여 고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기상, 서로 돕고 이끌면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다.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105(2016)년의 투쟁목표는 참으로 방대하였고 전진로정은 형언할수없이 간고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혹심한 대재앙을 겪은 함북도북부피해지역을 짧은 기간에 이전보다 더 훌륭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복구전투도 《불가능과의 전쟁》이었다.

초강도제재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하고 필사적인 방해책동속에서 당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천백배로 폭발되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온한해를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적승리로 수놓았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 주체105(2016)년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국산화와 현대화의 열풍속에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제들을 확립하고 우리의 원료, 자재, 설비들을 수많은 개발생산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낸것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전력과 석탄, 금속, 화학, 건재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에서 생산과 수송목표를 수행하여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고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더욱 빛내었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중

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함북도북부피해지역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전대미문의 복구전투를 치르면서도 당이 내세운 20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낀것은 주체조선의 무한대한 일심단결의 위력과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의 큼직큼직한 대성공, 대전과들로 하여 위대한 변혁의 시대, 세기를 주름잡으며 휘황한 미래의 모든것을 만들어나가는 눈부신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주체105(2016)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있었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주체105(2016)년의 력사적투쟁을 통하여 확증한 진리는 다음으로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것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로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 혁명정신이며 조국의 번영과 미래는 자력자강에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은 사회주의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감행되어왔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은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강성부흥의 령마루로 나래쳐오르는 우리 인민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가장 가혹하고 야만적인 제재와 압살공세의 도수도 끊임없이 높이었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전례없는 극악한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이룩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옳바른 출로는 우리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을 비상히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요구와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새해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천만군민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주체105(2016)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력자강의 길만이 우리의 힘을 백방으로 다지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내화물공업을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내화물생산을 성공시킴으로써 해마다 이 공정에서 쓰이던 중유대신 우리 나라에 흔한 무연탄으로 질 좋은 내화벽돌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석탄공정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크링카생산능력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륙해운성과 령남배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은 자체의 설계와 기술, 자금으로

5 000t급무역집배와 태양빛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유람선을 훌륭히 건조하였으며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김책대경수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은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자체로 건조하여 진수식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금성트랙토르공장과 순천기계차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청진빠스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은 종전에 비해 질적지표들과 내부가 현대적으로 개선된 새형의 80hp트랙토르와 5t급화물자동차, 《집삼》형빠스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였다. 그리고 농업성과 해주, 신원, 광산, 함흥련결농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농기계건본들에 기초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농기계시제품들을 제작하고 자체로 여러대의 농기계들을 새로 개발하여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기계로 할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첨단과학기술도 능히 독점할수 있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지니였기에 우리 인민은 주체105(2016)년에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이 더욱더 악랄해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 만리마의 속도로 질풍같이 비약한 주체105(2016)년의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은 자력자강의 길만이 제국주의반동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체제압살책동도 단호히 짓밟개버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길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참으로 주체105(2016)년의 장엄한 투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우리의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로 확증해준 력사적투쟁이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올해의 총진군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할 것이다.